

요보호 아동 건강지원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보육기관의 역할

박혜경 / 구로건강복지센터 대표

1. 들어가며

구로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과 보건의료인, 복지인력이 연대하여 지역의 보건과 복지문제를 주제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지난 2002년 창립하였다. 구로지역 저소득주민 및 요보호아동,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게 복지서비스 -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 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지역의 복지, 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제안을 통해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0년부터 지역사회 요보호아동(저소득무료방과후 공부방, 쉼터,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주치의 맺기,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육기관과 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아동복지안전망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요보호아동 건강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요보호아동 복지안전망 시도

(1) 사업목표

① 구로지역 아동에 대한 실제적인 복지안전망의 필요성

구로지역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관계로 1997년 IMF로 인해 실직, 결손가정이 많이 생겨났으며 이 때부터 시민단체들은 실직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그 아이들을 상대로 결식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해줄 무료공부방 사업 등을 시작하였다. 이때 실직, 결손가정, 결식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파랑새나눔터 무료 방과후 공부방'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아동의 건강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파랑새공부방 아동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파랑새카드'를 발급하여 진료비·조제료 감면활동, 결식, 결손아동 건강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이 속에서 좀 더 많은 보건의료기관의 참여로 구로구 전체 요보호아동 - 실직, 결손, 결식가정의 아동 -을 위한 안정적인 건강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② 지역사회 보건의료인 참여의 장 제공

구로건강복지센터는 2000년 2월에 창립한 신생단체로서 보건의료인, 지역주민 참여형의 활동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90년대 함께 활동하던 지역의원들이 활동을 정리하고 떠난 상태라 실제적으로 지역보건의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시기에 아동의 건강문제와 이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의료인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함께 하는 계기로 삼고자 사업화 하였다.

(2) 진행상황

① 2000년 구로지역 요보호아동 건강지원사업

2000년 6월~12월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구로지역 을지역(선거구획상. 구로 본동~6동, 가리봉 1, 2동)의 저소득 무료공부방, 청소년쉼터, 3개 초등학교의 보건실 관리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치료비 지원, 주치기관 맺어주기 등으로 진행하였다.

그 첫 번째로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2000년 10월29일 구로구내의 영서초등학교에서 총 128명의 아동을 검진하였고, 검진내용은 아동 기본신체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청력검사, 시력검사, 흉부 촬영, 치과검진, 의사의 문진 등으로 보다 자세한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날 검진에는 지역의 소아과, 정형외과, 내과 의사, 치과 의사, 약사, 노숙자 진료소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수고를 해 주었다.

검진결과 내과, 소아과 치료아동이 46명, 안과 의뢰 아동 25명, 치과의뢰 아동 73명, 소아정신과 의뢰아동 4명, 간염예방접종필요 아동이 80명으로 나타났다. 검진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과 각 후원보건의료기관을 주치기관으로 맺어주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요보호 아동들을 상시적으로 건강지원할 수 있는 '구로어린이 건강지원단'을 구성하여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질병의 치료를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건강지원단은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후원금은 요보호아동들의 2, 3차 의료기관 이용 비용, 각종 예방 접종, 수술이 요구되는 아동들의 수술비용 등으로 쓰이며 이곳에서 계속적인 사업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2001년 구로지역 요보호아동 건강지원사업

2000년도에 실시한 요보호아동 건강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2001년도 건강지원사업은 그 양과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먼저 구로 을지역에서 구로 전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신체적인 건강문제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추가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먼저 구로지역의 아동보호시설 20곳을 직접 방문조사하며 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9개 시설이 함께 하기로 하여 건강지원단 모임에 참가하였다.

■ 건강검진

9월 23일 오후 1시~6시 사이에 진행된 건강검진에는 저소득공부방과 자활후견기관아동, 비정규직 여성노동 조합 아동 등 총 195명이 참여하였다.

5명씩 짝을 지어 소변검사, 기초체력검사, 혈액검사, 의사의 진찰, 치과검진, 청력검사, X-ray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검진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 검진인원 : 195명 (이중 6명은 혈액검사 결과 나오지 않음)
2. 종합소견상 이상이 있는 아동 - 106명
3. 내과, 소아과 의뢰 아동 - 77명
4. 안과 의뢰 아동 - 44명
5. 소아정신과 의뢰 아동 - 17명
6. 치과 의뢰 아동 - 112명
7. 간염예방접종 - 142명

■ 주치기관 맺기

각 시설별로 가까운 의원을 주치기관으로 맺어주어, 건강검진 후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치과를 포함하여 현재 15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주치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 상시적 진료비지원

2000년 검진아동을 포함하여 2001년 검진아동 중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을 가진 아동에 대한 지원활동을 한다.

〈 진료비지원사례 〉

2000년 요보호아동건강검진 시 알게 된 모아동을 통해 가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모아동은 어려서부터 심장이 안 좋고(심장으로 연결된 동맥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병이라고 함) 혈우병을 갖고 있는 아동이었다. 어머니는 쌍둥이형제가 갓 돌이 지날 무렵인 95년에 아버지를 잃은 이후 줄곧 파출부 등 혼자 힘으로 두 아들을 보육해 왔다. 당시 모아동 가정은 의료보호 2종으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었으나 월세가 14만원이어서 생계비의 대부분은 주거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 큰일은 어머니도 심장병으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어머니는 라디오에 사연이 소개되어 병원비 550만원을 전액 지원받아 심장병 수술을 받았고 우리 단체의 노력으로 의료급여 1종이 되었으며 근로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 생계비가 상향 조정되었다. 그래도 매년 모아동 초음파 촬영을 통해 병의 진행상태를 체크해야 하는데 20만원이나 되는 돈은 이 가정의 부담이 되어 본 단체가 운영하고있는 '요보호아동건강기금' - 지역사회 주민, 보건의료인의 후원으로 만들어짐 - 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 충치예방 치료

- 건강검진시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충치 등의 문제가 있는 아동은 지원기관에 치료의뢰함
- 저학년층을 중심으로 보건소와 연결하여 영구치 치면열구전색을 하여 충치를 예방한다.

■ 예방교육

보건의료계 자원봉사대학생들을 조직하여 예방교육 활동을 함으로서 질병예방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지역활동이 되도록 하였으며 충치예방, 치아관리교육 및 위생관리교육, 성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③ 2002년 건강지원사업

2002년은 요보호아동의 건강지원에 지역사회의 역할이라 보고 지자체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보건소와의 연계로 통해 진행하였고 신체적 건강 못지 않게 정신적 건강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었다.

2년간 지속적 건강검진으로 새로 입학한 아동이나 문제가 있었던 아동을 중심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 구강검진

기간 : 2002년 6월~7월

장소 : 구로구 보건소

대상 : 선재방과후교실, 파랑새공부방, 누리공부방 80여명의 아동

내용 : 충치치료, 치아홈 메우기, 잇솔질 교육 등

■ 건강검진

기간 : 10월 28일~11월 1일

장소 : 구로구 보건소

대상 : 파랑새공부방, 창신모자원, 연세사회복지관, 누리공부방, 선재방과후교실

5개 시설 50여명

내용 :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촬영

결과 : 재검진아동(20명), 간염예방접종(27명) - 명소아과 의뢰

■ 정신건강지원사업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신건강이다. 건강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아동들은 결핍된 환경의 영향으로 또래의 일반아동에 비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주의가 산만하고,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특성을 나타냈다. 이후 정신건강지원이 필요한 아동 13명을 선별하여 심리검사를 비롯한 집단상담과 개별상담 그리고 아동에 따라 약물치료가 이루어졌다. 특히 방학동안에는 4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감증진, 비행예방 및 사회성증진, 대인관계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신건강의 향상을 꾀하였다.

그 중에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지원사업중 만난 사례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정신적 건강을 지지, 지원해줄 센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싶다.

1) 마음성장 계절학교

① 기간 : 1월 8일~2월 27일

② 대상 : 파랑새공부방(18명), 누리공부방(2명), 푸른교실(25명)

③ 내용 : 자신감/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총9회), '좋은 친구되기' 프로그램(총7회), 갈등대처 프로그램(총10회), '쉼 그리고 조용히' 프로그램(총7회), 비행예방프로그램(총8회)

2) 아동 정신건강프로그램

①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총10회)

가. 기간 : 6월 21일~7월 23일

나. 대상 : 파랑새공부방(3명), 누리공부방(1명)

②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총8회)

가. 기간 : 6월 27일~8월 23일

나. 대상 : 연세사회복지관(4명), 누리공부방(1명), 선재공부방(2명), 파랑새공부방(2명)

③ 분노조절 프로그램(총9회)

가. 기간 : 9월 24일~11월 19일

나. 대상 : 연세사회복지관(4명), 파랑새공부방(2명)

④ 자기주장훈련프로그램(총8회)

가. 기간 : 9월 26일~11월 28일

나. 대상 : 연세사회복지관(2명), 파랑새공부방(3명), 누리공부방(1명)

⑤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

- 상담심리를 전공한 선생님이 정기적 상담을 진행하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지지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지역에서 각종 검사와 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아동들에 대한 관리가 지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사 교육 및 사례회의

① 1월 15일 - 방임가정의 아동

② 1월 22일 - 알코올 중독 가정

③ 1월 29일 - 학대가정의 아동

④ 2월 5일 - 문제행동에 대한 진단규준

- ⑤ 6월 18일 - 알코올중독 가정에 대한 개입전략
- ⑥ 8월 6일 -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 ⑦ 9월 30일 - 소아우울증
- ⑧ 11월 18일 - 아동의 언어장애

3. 지역사회 요보호아동 건강과 복지 확보를 위한 제안

1) 지역사회 안정적인 건강지원망 확보가 필요하며 건강지원네트워크에 보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도가 필요하다.

지역의 보건의료인과 요보호아동시설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는 '구로어린이 건강지원모임'을 시도해 보았으며 시설모임, 보건의료기관모임이 따로, 때로는 같이 모임을 하면서 일방적인 지원체계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지원체계를 모색해보았다.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아동을 항상 접하고 있는 교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교사가 적극적인 시설의 아동이 건강지원의 프로그램 많이 접할 수 있었다.

현재는 상시적으로 모이지 않는 느슨한 지원체계이지만 주치기관으로 연결되어있어 아동의 건강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위와 같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간 안전망은 지역사회 아동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필요를 느끼는 누구나 기획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2) 민·관의 협조체계 필요

현재 지방자치체마다 다르겠지만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영구치 치면열구전색'과 '구립어린이집 건강검진'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예방접종, 건강검진은 무료 저렴한 비용으로 1행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부족하지만 지자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를 근거로 부족한 내용에 대한 요구 또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종합적 지원체계를 위한 시민단체 및 보육기관의 연대 필요

요보호아동의 건강문제로 시작했는데 그 아동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문제 또한 심각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 또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저소득층에게 상담과 심리검사, 놀이, 음악, 미술치료 등에 대한 접근은 시설도 별로 없거니와 비용 면에서도 접근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현재 지역사회에 부족한 '아동상담센터'등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및 보육기관의 연대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